

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NIP(navelbine, ifosfamide, carboplatin) 복합화학요법

원자력 병원 내과

이영우*, 김봉석, 박연희, 류백렬, 김태유, 강윤구

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합암화학요법의 효과는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여 platinum-based 복합화학요법에 의한 반응률은 20-40%, 중앙 생존기간은 8-9개월로 보고되고 있다.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약제 및 복합화학요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. navelbine(vinorelbine)은 최근 개발된 새로운 vinca-alkaloid로서 단일요법으로 비소세포성 폐암 및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. ifosfamide는 cyclophosphamide의 analogue로서 역시 단일 약제로 비소세포성 폐암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으며, carboplatin은 단일 약제로서의 역가는 marginal하지만, 같은 platinum 제재인 cisplatin에 비해 독성이 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에 연구자들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navelbine, ifosfamide 및 carboplatin을 포함한 NIP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하여 그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 NIP 복합화학요법은 navelbine 25 mg/m²을 day 1 & day 8에 정맥주사하였고, ifosfamide는 3g/m²을 day 1에 정맥주사하고, 출혈성 방광염의 예방을 위해 mesna 2.4g/m²을 주입하였으며, carboplatin 300mg/m²을 day 1에 정맥주사하는 것을 1주기로 하여 매 4주마다 반복투여하였고 독성의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수액과 항구토제를 병용하였다. 1997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26명의 환자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데, 이들 중 3명은 1회의 화학요법 후 반응의 평가없이 추적되지 않아 평가가능한 환자는 23명이었다. 이들의 남녀비는 16:7이었고, 나이는 33-67(중앙값 58)세였으며 ECOG에 따른 활동도는 1이 19명(83%), 2가 4명(17%)이었다. 병기는 IIIB 3명(13%), IV 17명(74%), 수술 후 재발이 3명(13%)이었다. 병리조직학적 분류상 squamous cell carcinoma 7명(30%), adenocarcinoma 14명(61%), 병리학적 유형을 알 수 없는 non-small cell carcinoma가 2명(9%)이었다. 23명 중 부분반응이 8명, 불변이 7명, 진행이 8명에서 관찰되어 반응률은 34.8%(95% C.I. = 14.9~54.7%)였다. NIP 복합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 중 혈액학적 부작용은 총 65회의 화학요법 중 WHO criteria grade 2이상의 백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가 각각 1회(2%)에서 관찰되었으며, 비혈액학적 부작용은 23명의 환자 중 grade 2이상의 오심 및 구토가 3명(13%)에서 나타났고 구내염 및 설사 등이 관찰되었으나 대부분 grade 1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. 하지만, 6명(26%)의 환자에서 정맥주사부위에 정맥염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다른 복합화학요법에서 관찰된 빈도보다 다소 높은 수치였다. 이상의 결과로, navelbine, ifosfamide 및 carboplatin을 포함한 NIP 복합화학요법은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해 독성은 비교적 감내할 만 하나, 기존의 복합화학요법과 비슷한 정도의 반응률로 큰 장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
— F-138 —

액와림프절 양성인 폐경전 유방암 환자에서 보조화학요법의 제 3상 비교연구

방수미*, 이기형¹, 변재호, 장홍문, 허대석, 방영주, 김성록², 김노경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,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²

배경: 액와림프절이 양성인 폐경전 유방암 환자에서의 수술 보조화학요법은 재발을 줄이고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시킨다. 본 연구는 adriamycin을 포함하는 AC화학요법이 CMF화학요법에 비해 우수하지 알아보기 위한 전향조사이며 이기형 등이 95년도 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중간보고한 후, 3년간 추적한 결과이다.

대상 및 방법: 1989년 10월부터 1996년 7월까지 본원에서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124명의 액와림프절 양성인 폐경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을 나이(35세 미만과 이상)와 양성인 림프절 개수(1-3, 4-9, ≥10)에 따라 층별화하여 각 치료군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. 각 군의 치료는 AC: ADR 40mg/m² and CTX 600mg/m² IV on D1 q 3weeks 및 CMF: CTX 100mg/m² PO on D1-14, MTX 40mg/m² and 5-FU 500mg/m² on D1 & 8 q 4weeks로 각 6회씩 시행하였다.

결과: 대상환자의 중앙연령은 42세(24-54)였고 중앙추적기간은 57개월이었다.

	AC	CMF	significance
환자수	56	68	
재발	15(27%)	12(18%)	
원격전이	11	10	
국소재발	4	2	
5년 생존율	91%	86%	p=0.61
5년 무병생존율	71%	78%	p=0.14
백혈구감소증 /치료횟수	98/336	197/408	p=0.0001

결론: 액와림프절 양성인 폐경전 유방암 환자에서 AC 및 CMF 두 가지 보조화학요법의 효과는 차이가 없었고, 치료중의 백혈구감소증은 CMF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.